



技術開發 부문 확충으로 國際競爭 體制完備

鄭 在 恩 / 三星電子工業(株) 社長

한 해를 보낼 때면 흔히들 多事多難하였던 한 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올해도 어김없이 쓰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韓國 經濟의 안정적 成長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經濟閣僚 여러분께서 悲運을 당하셨을 때 우리 民族의 試鍊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는 처절하고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었습니다. 올해도 작고 큰 여러 시련이 있었으나 참으로 우리 民族이 지닌 底力이 돋보이며 하나하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을 經濟界에 있는 한 사람으로 感知할 수 있었을 때, 마음 깊이 숙연해짐을 느꼈습니다.

지난 數年間の 不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產業界는 작년말부터 回復의 조짐이 비치면서 83년에 들어 油價의 下落·金利 引下 등으로 기인한 國際的인 景氣 회복 무드와 함께 올해는 그야말로 數年 만에 밝고 힘찬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분주하고 열띤 한해를 보낸 듯 합니다. 올해는 汎世界的인 오랜 不景氣 속에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先進國에서는 점차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이러한 영향 등으로 아직 최종 集計되지는 않았지만 新保護貿易主義의 팽창 속에서도 약 7%의 輸出 伸長 실적을, 특히 電子工業

의 輸出은 작년에 비해 거의 30% 가까운 輸出 伸長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팔목할 만한 伸長은 단순히 경기 회복 기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電子人들의 강건한 의지와 혼신을 다한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賦存資源도 없고 資本蓄積도 부족한 나라로서 지속적인 經濟 成長을 위해서는 輸出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經濟人뿐 아니라, 國民 모두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의 輸出 환경은 매우 험난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西方 7個國 頂上會談을 통해 新保護貿易主義의 배경 등이 논의되어, 貿易 自由化 정신이 復活되는 듯 하지만 國際金融 체제가 아직 불안하고, 資源의 武器化 경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技術競爭의 격화, 新興工業國間的 경쟁, 後發開發國의 新市場 참여 등 불확실한 變數는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얼마 전 美國에서 여기저기 관련된 업체들과 同業界 人士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다 과연 우리가 살아 남을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世界 市場은 제쳐놓고 美國의 電子市場은年間 1,380億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컴퓨터와 周邊機器가 450億 달러, 通信 분야 등을 빼고 나면 우리의 主種 輸出 품목인 家庭用

품목과 部品の 市場은 겨우 250億 달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日本이 장악하고 있으니 價格 競爭 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올해 韓國產 컬러TV에 대한 덤핑 提訴로 더욱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83년을 돌아볼 때 늘 급박한 상황 의식 속에 寧日이 없었던 듯 합니다. 급속한 技術革新이 이루어지고 있는 電子工業의 특성 때문에 技術革新이 企業의 存立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급박한 상황은 올해의 好況의인 국면에서도 결코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특히 本人에게 있어 83년은 三星電子의 社長으로 就任한 첫해로 포부와 결의를 갖고 임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本人은 電子工業에 있어 國際競爭力의 강화가 우리의 지상과제임을 인식하고, 品質 향상, 技術 향상, 高品質 商品 개발, 原價節減, 對外 信用 提高, 海外市場 개척의 측면에서 競爭力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外國 바이어의 對 韓國 去來에서 クレ임 提起 要因을 보면, 60% 이상이 品質 不良이고 10% 이상이 見本과 本品의 相異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품의 不均質과 끝마무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素材가 좋고 디자인이 뛰어나도, 불성실한 작업으로 인한 결함이 다소라도 있으면 商品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生産工場 가운데 대부분의 中小企業 工場이 管理技法 없이 前近代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品質 향상과 生産性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여서,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83年 10월에 中小企業 系列化 促進協議會의 結成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이 가일층 강화된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합니다.

品質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産業 勞動者의 높은 離職率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市場에서 好評을 받고 있는 日本 商品의 경쟁력은 終身雇傭制와 이에 연유한 확고한 勤勞者 意識에서 發生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日本의 離職率이 5%未滿이고, 美國은 50%에 이르러 美·日間의 生産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美國 학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政府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平生職場으로 알고 일할 수 있는 作業환경과 勤勞 여건이 마련되고 勤勞者의 職業意識과 職業倫理가 뿌리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品質向上을 위한 국내의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技術 水準 提高를 위해서는 선진 高度 技術의 導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先進國의 技術 독점화 傾向으로 開發 환경은 어려워 지고 있으나, 政策的인 支援를 통해 技術 先進國과의 協力體制를 공고히 하여 공동 研究 體制, 공동 投資, 人材 交流 등을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國際 競爭力 強化를 위해서는 商品 企劃力 강화, 輸出 마케팅의 효율 極大化, 철저하고 완벽한 서비스에 의한 對外 信用提高 등에 우리 企業側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源資材의 합동 購買, 輸出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輸出 原價 節減을 위해 政府側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基礎産業과 中間材 産業을 포함한 輸入代替 産業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는 輸出 産業에서의 產品의 品質向上, 生産性 向上을 위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직접·간접으로 海外市場과 연결되는 對外 指向의 産業으로 이는 高度의 技術을 필요로 하므로 이의 육성은 産業構造의 실질적인 高度화와 技術의 高度化를 수반한다 할 것입니다. 韓國 電子工業에서의 産業下部構造의 확충을 위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國際競爭力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었습니다만, 본인은 무엇보다 技術革新과 이를 통한 海外市場 進出 擴大가 우리의 나아갈 바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새해의 經營方針으로도 「技術開發 部門의 확충을 통한 國際 競爭體制 完備」를 第一의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産業의 競爭力에 있어서나 市場 資源·資本·技術水準 등에 있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狀況아래서 對外 競爭의 성공에 企業의 운명을 건다는 것은 모험이 매우 크지만, 우리의 目標은 그리로 향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추구해온 바, 技術革新, 輸出 伸長에 最優先을 두는 방침을 固守할 것입니다.

협소한 市場規模와 낮은 購買力 수준으로 新製品 開發에 의해 輸出上의 開發 이익을 포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國內수요가 없는 制約條件이 있기 때문에 先進國의 成熟期 단계에 있는 標準化 產品을 모방 輸出하거나, 海外 有名 브랜드와 提携하여 短期間에 高價品을 開發하는 것 등이 현재 우리의 여건이지만, 技術革新을 향한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研究開發 투자 的 擴大, 技術情報 體制의 確立과 高級 技術人力의 확보로 技術開發을 가속화하는 것이 우리 電子工業의 나아가야만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83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經濟的으로는 안정 成長 政策이 점차 實效를 거두며, 선진 産業國을 향해 정상적인 전진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 한해였습니다. 저희 三星電子도 5億弗 輸出 達成으로 10余年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世界的인 電子메이커로 성장한 저희 三星電子의 사원들에게 의욕을 불어 넣어 주며, 電子立國의 사명으로 더욱 武裝하는 계기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83年은 비단 三星電子뿐 아니라 電子産業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큰 희망과 포부를 심어 줄 수 있었던 보람된 한해로 國民的 이 해나 호응은 물론이고, 政府 차원에서의 政策的 지원이나 관심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던 한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신뢰에 힘입어 우리 電子工業은 發展 성장이 계속되어질 것이며, 世界的 電子工業을 主導하는 입장에 설 수 있으리라는 것이 환상만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甲子年은 우리 電子工業의 新紀元의 해가 될 것을 所望하면서, 電子人 모두의 새해의 健勝과 幸運을 祈願합니다.